

# 전북교육청·도 “교육현안 협력”

### 전북도 교육행정협의회... 학교급식 질적 성장 제고 등 4개 안건 논의

도교육청과 전북도는 5일 전북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0년도 제2회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교육현안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정병익 부교육감과 최훈 부지사, 소관부서 국·과장 등이 참석했다.

전북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라 매년 2회 진행되며, 각 기관에서 제출한 교육현안에 대한 안건을 논의하는 자리다.

양 기관이 합의한 내용은 차기년도 예산편성과 교육과정 운영 등에 반영돼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기관 간 협력 사례로 그 위상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사전 실무협의회를 통해 제안된 ▲무상급식의 질적 성장 제고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 ▲학교급식의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 ▲급식비 단가에서 운영비 분리 등 4개 안건이 다뤄졌다.

양 기관은 이날 협의를 통해 학교급식에 우수한 지역 농산물(로컬푸드)이 사용되도록 학교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긴밀한 협조체계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도교육청은 안정적인 무상급식비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분담 대상 항목(급식운영비·식품비), 비율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재정분담 방향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전북도는 지역 우수 농축수산물 사용 확대를 통한 무상급식의 질적 성장 제고를 위해 무상급식 지원 항목 분리, 대상별 차등 단가 적용, 지

원대상 확대 등을 전북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전북교육청의 2021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전입금 세출예산 편성에 합의했다.

최훈 부지사는 “도청과 교육청이 지

역교육발전을 위해 현안을 논의하는 매우 뜻깊은 자리였다”며 “지역 교육발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병익 부교육감은 “지역교육을 위해 전북도에서 항상 깊은 관심을 보내 주 감사하다”며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일은 지역사회의 전체가 협력할 때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다”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지난 5일 전북교육청 정책협의실에서 2020년도 제2회 전라북도 교육행정협의회를 열고, 지역 교육현안에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 ‘고시 명문’ 전북대, 회계사 6명 합격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는 제5회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6명의 합격자를 배출하며 고시 명문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5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발표된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유형민씨(회계 4년)를 비롯해 이유리(회계 4년), 이석은, 박민휘, 송정현, 최희곤씨(이상 회계 졸업) 등 6명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다.

공인회계사 시험은 상경계열의 최고 수준의 자격시험으로 매해 1만 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시험에 응시, 합격 후 회계법인 및 컨설팅으로 취업하게 된다.

전북대가 이렇게 다수의 회계사 합격자를 배출할 수 있었던 데는 상대 회계학과와 상대 고시 준비반인 건지현의 체계적인 고시 지원 시스템이 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지현에서는 회계사 준비 학생들에

게 외부 특강과 동영상 강의 지원, 진도별 모의고사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력을 쌓도록 도와왔고 회계학과 교수진 역시 우수한 강의를 기반으로 학생들의 시험 준비에 힘을 보탰다.

정영선 인재등용관장(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시반이 임시 폐쇄되는 등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체계적인 고시 지원을 통해 이룩한 성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전국 최고 수준의 고시 지원 시스템을 이어나가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호 학장은 “상대 회계학과 교수님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과 우수한 강의 덕분에 우리 상대에서 이번 회계사 시험에 좋은 성적을 거뒀다”며 “급변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에 맞춰 학생 교육 내실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 “너도나도 공모전 참여하세요”

### 전북교육청, 7~28일 신청접수 사진·포스터·동시 3개 분야

전북교육청은 2020 너도나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너도나도 공모전은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여 소통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전북교육 구성원들이 자유롭게 제작한 특색 있는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기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다.

공모 분야는 사진·포스터·동시 3개 분야로 학교생활 중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이야기를 주제로 하면 된다. 참가대상은 사진은 교직원 포스터는 중·고등생, 동시는 초등생이다. 응모기간은 7일부터 28일까지로 전북지역 학생 및 교직원이면 누구나 가

능하다. 공모방법은 전북교육소식 홈페이지(<http://news.je.gakr/>) 공모전 작품신청 게시판에 출품자 인적사항과 작품 제목, 작품 소개 등을 직접 등록한 뒤 작품을 첨부하면 된다.

동시의 경우 초등생을 대신해 담임 교사나 학부모가 대리 접수할 수 있다. 1인당 1편만 응모 가능하며, 2작품 이상 등록시에는 먼저 등록된 1작품만 심사 대상이 된다.

이후 도교육청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순경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수상작은 각 분야별로 대상 1점, 최우수 1점, 우수 2점, 장려 8점 등 총 36점을 선별할 예정으로 수상자에게는 교육감 상장과 상금이 수여된다. /정은성 기자

#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 앞당긴다

### 전북대 연구팀, 고효율 태양전지 기술 개발



김유진 나석인 김석순

전북대학교 유엔연계전자전문화대학원 김유진 대학원생(석사과정)과 나석인 교수, 군산대 김석순 교수 등으로 구성된 공동 연구팀이 차세대 태양전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목을 받고 있다. 5일 이 연구팀에 따르면 다기능성

첨가제를 포함한 인티솔벤트 공정을 사용해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perovskite) 박막 형성기술을 개발, 이를 적용해 고효율을 달성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갖는 기존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 성과는 에너지 과학 분야 세계적인 학술지 'ACS Energy Letters' (IF=19.008)에 게재됐다. 최근 페로브스카이트 물질을 광활성층으로 사용하는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우수한 광전지적 특성으로 인해 2009

년 3.8%에서 2019년 25.2%로의 급격한 전력변환효율 증가를 보였으며,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차세대 태양전지 및 미래 대체 에너지원으로 기대가 크다. 기존의 용액공정으로 제작한 유-무기 하이브리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페로브스카이트의 이온적 특성으로 광활성층 내부 및 표면에 많은 결함이 존재하는 불안정한 페로브스카이트 박막을 형성하고 광생성 전하의 이동을 방해하고 수축함으로써 전하 재결합을 유발 성능을 감소시키는 문제가 있었다. 고성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작하려면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의 결함 패시베이션(Passivation) 및 결정 성장 제어를 통한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 광활성층 박막 제작이 요구된다. 이에 연구팀은 다

기능 첨가제를 포함하는 인티솔벤트 공정을 도입하여 페로브스카이트 결정성상 및 표면의 결함을 줄여 효율 및 안정성을 극대화했다. 실제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최고효율 20.46%를 달성했고 봉지화(encapsulation)를 하지 않은 25°C, 상대습도 40±5%의 공조조건에서 90일 이후 초기효율의 61%를 유지, 129일 이후 초기효율의 56%를 유지함으로써 높은 광전변환효율 및 공기안정성이 확인됐다.

이 연구 성과는 다기능성 첨가제를 포함하는 페로브스카이트 인티솔벤트 제조 방법을 통해 고품질 페로브스카이트 박막 형성이 가능함을 시사했으며, 향후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상용화를 앞당기는데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전력연구원(주력연구사업), 한국연구재단(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됐다. /정은성 기자

#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 공무원 등 24명 합격

전주비전대학교 지적토목학과 학생 24명이 최근 지적직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국립사립과학원에 합격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전주비전대 지적토목학과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총 82명(2018년 28명, 2019년 32명, 2020년 24명)의 공무원과 공기업 합격자를 배출했다.

김지성 학과장은 “이러한 성과는 드론, 3D프린팅, AR(증강현실), VR(가상현실), 빅데이터 활용과 같은 교육을 통해 4차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핵심역량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육성을 위한 교

육 진행에 따른 결과”라고 말했다.

공간정보특성화전문대학 사업단장인 심정민 교수는 “이러한 교육과정운영은 전국에서 3개의 대학만이 진행하고 있다”며 “국토교통부 사업인 ‘공간정보 특성화 대학’을 지적토목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한편 전주비전대학 지적토목학과는 최근 정읍교육원 아동 이리고등학교 학생, 전라북도 공무원 진안경찰서 대원들을 대상으로 드론교육 등 재능기부를 하며 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다. /정은성 기자

#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팬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데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